

남원 월매야시장, 지역명소 우뚝

차별화된 먹거리·예술인 소규모 공연 등 관광 필수 코스 떠올라

지난 4월 26일 개장한 남원 월매야시장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며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남원 월매야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야시장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10시까지 열리고 있으며, 방문객은 가족단위 및 젊은층 등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문화 예술인의 소규모 공연 등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문화예술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특히, 차별화된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찬 남원 월매야시장의 인기는 다양한 맛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판매와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이 참여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색다른 음식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월매야시장의 문화예술 공연은 지역 내 동아리단체 회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으로 더욱 의미가 깊고, 앞으로는 지역내 학생들의 참여로 버스킹

공연도 무료로 펼쳐질 예정이며, 공설시장 전면주차장 야외무대에서는 국악공연과 전통춤, 커버댄스,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매주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펼쳐진다. 월매야시장은 광한투원과 남원예촌, 예가잡길 등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관광열차 이용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문화체

류형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공설시장에 야시장을 개장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매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변 상가 뿐 아니라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 상가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4월 26일 개장한 남원 월매야시장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며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기능성 미생물 발굴

토양서 분리한 유용균주로 농·축산업에 활용 가능 바실러스 등 5종, 작물생육 및 항균활성능력 갖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이하 센터)가 최근 순창군 전통 발효식품 및 관내 토양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증진에 우수한 기능성 미생물을 발굴해 화제다.

센터가 확보한 미생물은 항균 활성을 가지는 바실러스 벨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Bacillus amyloliquefaciens*)다.

여기에 땅심증진 및 난분해성 유기물의 가용화가 뛰어난 효모균인 카자흐스타니아 세르바찌(*Kazachstania servazzii*), 데바리오미세스 한세니(*Debaryomyces hansenii*) 및 유산균인 엔테로코쿠스 페시움(*Enterococcus faecium*) 등 3가지를 더해 총 5가지다.

바실러스 벨레젠시스와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 균주는 항균활성화 실험 결과 고추 탄저병의 균사생장 억제율 30%, 사들름 병을 31%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모균인 카자흐스타니아 세르바찌와 데바리오미세스 한세니, 유산균인 엔테로코쿠스 페시움은 가축 소

화기 질병 예방과 사료 소화효소 생산 촉진, 축사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뛰어나 축산 농가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연구 성과를 이뤘던 배경에는 지난 2017년에 개소한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이 크다.

연구센터는 지난해 6월 박사급 연구인력을 신규로 채용해 전문성을 더하면서, 농작물에 유용한 미생물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신규 분리한 유용미생물의 기능성효소인 키틴 분해효소, 셀룰로오스 분해효소 등의 활성, 작물병해충 방제 활성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고추 작물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고추 생육 증진 활성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내달 10일까지 돌발해충 집중 방제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 지도를 강화에 나섰다. 방제 최적기는 월동난 부화시기와

관계가 있는데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 협의회 결과 올해는 5월 17일에서 5월 22일경 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군은 28일부터 6월 10일 방제 최적기로 예측하고 집중방제하기로 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토요국악플러스' 공연을 6월 8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국립민속국악원, 토요국악플러스 6월 8일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전통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국악플러스' 공연을 6월 8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청산이 부르거늘'이라는 소재를 주제로, '자연속의 삶'을 노래한 한시(漢詩)와 민속화를 특수영상으로 연출해 관객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에서는 장구 가락의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삼도 설장

구'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한국 춤의 정수를 보여주는 '승무', 판소리적인 요소가 강하고 자유자재로 변하는 음식의 조화가 일품인 '김일규류 아쟁산조', 고고한 학의 동작을 춤사위로 표현한 '동래학춤'을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대거 출연해 신명나는 남도 뱃노래와 신밧노래 무대로 관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며, 공연은 무료이고 전화(063-620-2324~5)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광명소 옥정호, 붉은 장미 만발

이달 말까지 초절정, 주민·관광객에 볼거리 제공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에 사랑과 정열의 상징인 붉은 장미가 만발하게 피어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운암면 옥정호 순환도로 및 호수공원일원에 사랑과 정열의 상징인 붉은 장미가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총 12km구간에 달하는 옥정호순환도로(지방도749호선)에 심은 덩굴 장미는 지난 2006년 자연경관을 헤치는 절개지 부분에 1만2000여본을 식재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운암면소재지 이주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도로사면 1.2km구간에 1500주를 식재했다.

현재 옥정호에는 붉은색과 분홍색 장미꽃이 서로 고개를 들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장미는 사랑, 열정, 기쁨, 행복, 순결 등 다양한 꽃말을 간직하고 있으며, 관상용으로 재배되지 3000여년이 훌쩍 넘었다.

군은 옥정호 주변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장미꽃이 만발함에 따라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꽃의 고장, 살고싶은 임실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수공원과 옥정호순환도로 경관조성을 위해 매년 장미생육에 필요한 밀거름과 잡초제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호반의 도시 옥정호를 세계적인 장미도로로 만들 계획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GCM 활용농가 대상 딸기·블루베리 재배기술 세미나

순창군이 최근 GCM 미생물 농법의 확산을 위해 관내 GCM 활용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딸기, 블루베리 재배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해, 전남대 김길용, 정우진 교수를 비롯, 연구원들도 강사로 나와 GCM 미생물 배양기술과 병해충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점차 친환경농법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이 진행된 세미나실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교육외에 관내 GCM 활용 농가들이 직접 자신만의 노하우와 실제 사용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져 친환경농법에 관심 있는 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해부터 GCM을 매주 20톤 배양하여 농가에 나눠주고 있으나, 최근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해, 농가에서 직접 GCM을 자가 배양하도록 자가 배양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GCM에 대한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GCM을 공급하는 날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앞 광장에 GCM을 수령하기 위해 아침부터 트럭들이 줄 서있는 진풍경도 연출한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공무원, 행정혁신 노력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 만들기를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친절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라는 주제로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들은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첫 회의를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조직문화 개선과 과제 제출한 것은 남원시가 최초이다.

따라서 어떻게 남원시가 과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내부의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가치 창출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과제내 핵심으로, 이날 모임에서는 퍼실리테이터 기법으로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